

일본 사죄 끝내 못 받고... 안타까운 별세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아내 잃은 김중곤 할아버지

일본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희생된 여동생과 부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평생을 투쟁한 김중곤(사진) 할아버지가 결국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27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1차 원고인 김 할아버지가 지난 25일 새벽 울산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운명했다. 김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도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일본 도나가이 대지진으로 숨진 여동생 고(故) 김순례(사망 당시 14세)씨와 강제징용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 고(故) 김복례(향년 72

동생·부인 한 풀기 평생 헌신
지난해 미쓰비시 소송 승소
일자작 전기 국내 출간 앞뒤
세)씨를 대신해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 친구였던 김순례씨와 김복례씨는 광주 수창국민학교 졸업 후, 1944년 6월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항공기제작소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김순례씨는 같은 해 12월 발생한 도나가이 대지진으로 건물에 무너져 목숨을 잃었다. 평소 매우 아꼈던 하나 밖에 없는 여동생의 사망신고서를 받아 든 할아버지는 당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이후 김복례씨는 김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아와 "나만 살아 돌아와 면목이 없다"고 하염없이 울었다. 이때의 인연으로 훗날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또 올해에는 지난 2008년 일본 작가가 쓴 김 할아버지의 전기 '인간의 체'(人間の體)의 국내 번역 출판을 앞두고 있어 고대하고 있었다. 김중곤 할아버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를 강하게 원했지만 끝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도중 김복례씨마저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는 한국과 일본을 수십 차례 오가며 소송을 이어갔지만 결국 2008년 패소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병환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던 할아버지는 당시 크게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곤 할아버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를 강하게 원했지만 끝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ju.co.kr

5·18전국·세계화 시민 100여명 민주지도사 교육

29일~2월 1일 5·18교육관

5·18 민주화운동교육관(관장 황일봉)은 5·18 민주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100여명 교육을 오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5·18 교육관에서 진행한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은 27일 5·18 민주화운동 교육사업의 안착을 위해 현장 강사를 양성, 오월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교육지도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5·18 민주화운동 전개과정 등 이론과 5·18 관련 시설 및 사적지 현장답사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발굴된 100여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강사단을 구성, 학교와 직장 등에 출강해 5월 정신을 전파할 계획이다.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은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민주교육지도사 교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으로 문의(062-385-0795)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홍희 기자 kimyh@



축제 수익금 들고 독거노인 찾은 고교생들
광주대동고등학교(교장 정철원) 학생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27일 서구 쌍촌동의 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집안 청소를 돕고 있다. 대동고 학생들은 이날 교사·학부모와 함께 독거노인 가정 3곳을 찾아 집안 대청소를 하고 어른신들과 떡국을 끓여 먹었다. 학교 축제기간 부산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150만원도 어른신들에게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ju.co.kr

광주 남구의회, 미혼부모 지원·지역서점 살리기 조례 추진

광주 남구의회의원들이 눈길을 끄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쳐진다. 미혼 부모의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건 광주 기초자치단체에서 남구가 처음이다. 조례에는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양육비·자립비 등을 지원하

는 내용이 담겼다. 미혼모·부 가족의 정서·심리 상담이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과의 업무협력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 '한부모 가족지원법' 대상자이거나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로 한정했다. 같은 날 광도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담당 상임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5 달뜨기 00:46
해질 17:56 달짐 12:15

한풀격인 추위

맑은 가운데 새벽에 눈 내리는 곳 있겠다.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	서~북서	1.5~2.5	북서~북	1.5~2.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동)	서~북서	1.0~2.0	북서~북	1.0~2.0
남해	면바다(서)	서~북서	1.0~2.0	북서~북	1.5~2.5
	면바다(남)	서~북서	1.0~2.0	북서~북	1.5~2.5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0:18		07:42	
	12:41		20:00	
여수	08:23		02:26	
	20:53		14:35	

◇주간 날씨

날짜	30(수)	31(목)	1(금)	2(토)	3(일)	4(월)
기온	-4/10	-1/6	1/4	-4/5	-3/7	2/8
강수량	0	0	0	0	0	0

전남경찰 '유치장 사고' 방지 대책 마련

CCTV 등 정비하고 유치인 보호관 배치 기준 준수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한 50대 살인 피의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유치장 사고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관내 유치장 6곳을 점검하고, 유치장 제도 보완과 시설·환경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강력사건 피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2인 근무 유치장의 야간 근무 제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우선 유치장 내부 CCTV 등을 모두 정비하고 유치인 보호관 배치 기준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지병이 있는 직원의 유치장 배치를 금지하고 변호인 접견 시설 개선·규정 시간 외 변호인 접견 허용 등 유치인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혐의로 입감된 김모(59)씨가 유치실 내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ju.co.kr

법무부 "불법입국 브로커 신고하면 불법체류 면책"

법무부는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입국이나 불법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고자 신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가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단속이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재입국 허용 등의 우대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부 신고센터(1588-9191)를 이용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융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자기용태양광 남는 전력 100% 판매

- 주택, 상가, 공장, 슬라브, 마당, 토지에 태양광 설치하여 한전과 상거래 인여전력을 판매하는 방식
- 빌딩, 창고, 상가, 주택 등에 자가용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라도 쓰고 남는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면 REC+SMP가 적용된다. (20년 장기계약 가능)

■ 자기용 태양광 발전설비 15KW설치시 예상수익

기존사용량 (KW)	청구금액	태양광설비 후 예상청구금액	설비 후 발전량 (예상발전량-기존사용량)	판매수익 (SMP+REC+전기료절감액)
150	12,390원	2,210원	1,650KW/h	322,259원
200	17,690원	2,210원	1,600KW/h	317,740원
300	44,400원	2,210원	1,500KW/h	324,743원
400	65,760원	2,210원	1,400KW/h	325,805원
500	104,140원	7,090원	1,300KW/h	343,718원
600	136,050원	17,690원	1,200KW/h	355,170원

- 자가소비량은 기존 사용량의 40%계산됨
- 월 예상발전량은 15KW×4시간×30일=1,800KWh로 월 계산
- 판매수익은 SMP+REC+태양광설비후 예상절감액 포함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신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안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 010-8605-2740